

전남대병원, 세계 최초 향기분자로 디지털 스트레스 완화 임상시험 돌입

✎ 차원준 기자 | ⓒ 승인 2025.06.17 15:20

다학제 협력으로 향산화 향기 기반 중재기기 효과 검증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전남대학교병원이 세계 최초로 향기분자를 이용한 디지털 스트레스 완화 임상시험에 나선다.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연구원장 기승정)과 AI-Med(대표 유병록)는 지난 12일 병원 시니어코스메디케어실증센터에서 ‘향산화 향기 기반 중재기기의 다학제 (전)임상 평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전남대병원, 향산화 향기 기반 중재기기 개발한 AI-MED와 업무협약

이번 임상시험은 향기분자를 공기 매개로 피부, 점막,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전달, 디지털 기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눈 피로, 수면 장애, 뇌신경 노화 등 디지털 스트레스 증상 완화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다.

전남대병원과 AI-Med는 이를 위해 의생명연구원 및 안과(윤경철·윤현정 교수), 이비인후과(양형채 교수), 영상의학과(이윤영 교수) 등 다학제 의료진과 협력해 동물실험과 임상시험을 공동 수행한다.

특히 이번 시험은 안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다학제 임상시험 구조로, 국내에서 보기 드문 정교한 융합형 모델로 평가받는다. 이는 정밀한 임상 기획과 기술 통합 역량을 동시에 검증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임상시험은 산업통상자원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가 지원하고 전남대학교가 주관하는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구축 사업, 공동 연구책임자 윤경철 교수)과 연계돼 진행된다.

이 사업은 지역 유망 의료기기의 임상 검증부터 제품화, 글로벌 확장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며, AI-Med는 이를 통해 향기분자 기반 디지털 스트레스 완화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임상시험 총괄 책임자인 윤경철 교수는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의 특화 기술이 임상시험과 산업화로 이어지는 흐름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AI 기반 향산화 향기 중재기기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를 이끄는 전략 분야로, 이번 시험의 선도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기승정 의생명연구원장은 “다학제 협력을 통해 디지털 스트레스 증상을 과학적으로 평가·개선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차원준 기자 chamedi7@bosa.co.kr